

- 독일 대표전시회 참관 -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

-
- 출장기간 : 2013. 9. 13(금) ~ 9. 19(목) 【5박 7일】
 - 출장국가 : 체코, 독일 하노버·프랑크푸르트
 - 출장대상 : 박윤희 시의회의장,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
이길용 시의원, 김훈태 전문위원
 - 출장내용
 - EMO 2013(유럽국제공작기계전) 참관
 - IAA 2013(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참관
 - 하노버 및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관계자 미팅 등
-

고양시의회



- 독일 대표전시회 참관 -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

I. 출장 개요

- ▶ 출장 세부일정표

II. 전시회 개최 현황

III. 방문 국가 및 전시장 현황

IV. 방문기관별 출장내용

V. 출장자 의견

VI. 참고자료

1. 사진으로 보는 해외출장 활동
2. 출장자 명단
3. 출장국가 개요
4. 언론보도 스크랩



- 독일 대표전시회 참관 -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

I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산업분야별 선진 전시회(EMO 공작기계전, IAA 모터쇼)를 집중 참관 하고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Top 브랜드 전시회와 비교 분석
- 10만m² 규모의 글로벌 Top 브랜드 전시회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출장기간 : 2013. 9. 13(금) ~ 2013. 9. 19(목) 【5박 7일】

□ 출장지역 : 체코 프라하, 독일 하노버· 프랑크푸르트

□ 출 장 자 : 고양시의회 박윤희 의장,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
이길용 의원, 김훈태 전문위원

※ 동반출장 : 킨텍스 기획조정실 4직급 대리 김대겸

□ 출장내용

- EMO 2013(유럽국제공작기계전) 참관
- IAA 2013(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참관
- 하노버 및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관계자 미팅 등

▶ 출장 세부일정표

날 짜	지 역	시 간	주 요 일 정
제1일차 09/13(금)	인 천 프라하	12:45 ~ 16:50	○ 인천→프라하
제2일차 09/14(토)	프라하	10:00 ~ 17:00	○ 프라하 산업시찰 ○ <u>KOTRA 프라하 무역관</u> <u>업무협의</u>
제3일차 09/15(일)	프라하 하노버	08:00 ~ 15:00 15:00 ~ 17:00	○ 프라하→하노버 이동 ○ EMO2013 준비과정 참관
제4일차 09/16(월)	하노버	08:00 ~ 18:00 11:00 ~ 14:00 14:00 ~ 15:00	○ EMO2013 박람회 참관 ○ <u>공작기계협회 주최자 간담회</u> ○ <u>전시장 관계자 미팅</u>
제5일차 09/17(화)	하노버 프랑크푸르트	09:00 ~ 13:00 13:00 ~ 17:00	○ EMO2013 박람회 참관 ○ 하노버→프랑크푸르트 이동
제6일차 09/18(수)	프랑크푸르트	09:00 ~ 16:00 09:30 ~ 10:30 19:45 ~	○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참관 ○ <u>전시장 관계자 미팅</u> ○ 프랑크푸르트→인천
제7일차 09/19(목)	인 천	~ 13:05	○ 인천 도착

II 전시회 개최 현황

□ EMO 2013 행사 개요

구 분	내 용
전시회명	· 2013 유럽국제공작기계전 EMO Hannover 2013
장 소	· 독일 하노버, Hannover Messe
주 최	· VDW(독일공작기계협회) · Deutsche Messe AG(도이치메쎄)
행사기간	· 2013. 09. 16 ~ 09. 21 (09:00 ~ 18:00)
규 모	· 271,400m ² , 참가업체 2,000업체
홈페이지	· www.emo-hannover.de
전시 품목	· 공작기계(절삭/성형/연삭), 공작기계 관련 부품 및 소재 공구, 유압기기, 측정기 등 기계류 전반
전시회 성격	· 유럽 산업 중심지인 하노버(독일), 밀라노(이태리)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전문 전시회

※ 세계 4대 공작기계 전문 전시회

- EMO(유럽), IMTS(미국), CIMT(중국), SIMTOS(한국)

□ IAA Cars 2013 행사 개요

구 분	내 용
전시회명	· 2013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65th International Motor Show
장 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Messe Frankfurt
주 최	· VDA(독일자동차산업협회)
행사기간	· 2013. 09. 12 ~ 09. 22 (09:00 ~ 19:00)
규 모	· 123,503m ² , 참가업체 781업체
홈페이지	· www.iaa.de
전시 품목	· 자동차, 차량본체, 트럭, 트랙터, 상용차, 버스(미니버스포함), 특수 자동차, 컨테이너, 차량 내부장비, 부품 및 액세서리, 운송물류, 정비업소 장비, 모형자동차, 각종 액세서리 등
전시회 특징	· 홀수년도에는 승용차, 짝수년도에는 상용차로 구분되어 개최 · 주변산업과 교통관제 등까지 총망라 함으로써 유럽 자동차 산업의 전시무대

※ 세계 5대 모터쇼 개최지

- 파리, 제네바, 디트로이트, 도쿄, 프랑크푸르트

Ⅲ 방문국가 및 전시장 현황

□ 독일 전시산업의 특징

○ 현 황

- 800여 년의 역사, 전시회 연 500회 개최, 세계 최대 전시회의 60%가 독일에서 개최됨.
- 세계 10대 전시장 중 4곳이 독일에 위치
- 외국 참가업체 비율 53%, 외국인 참관객수 비중 23% 차지
- 참가업체 지출 연간 65억 유로, 방문객 지출 35억 유로에 달함.

○ 산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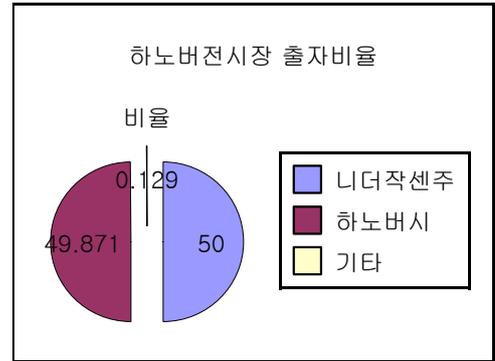
- 서유럽과 동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및 편리한 교통망, 국내 산업기반, 물류기지, 전시시설, 인근지역과의 연계 관광, 언어 소통 등이 강점임.
- 독일 주요 전시장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문 분야별 전시업종에 특화되어 있음.
-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된 세계 최고 전시 보유

○ 정책 지원

- 주정부와 시의 건립부지 무상임대, 전시 관련 SOC 투자
- 부동산세, 재산세 면제
- 세계 383개소에 독일 전시회 안내소 설치 및 AMP(전시회 지원 국가 프로그램)실시
- AUMA를 구성해 경쟁력이 없는 전시회는 통합조정하고 인접국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전시회가 겹치지 않게 순번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집중
- 전시전문가 양성 및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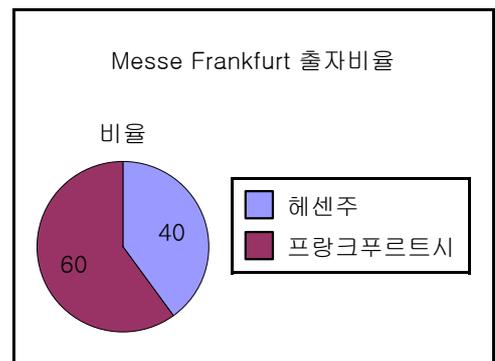
□ 하노버 전시장 개요

- 전시장명 : Deutsche Messe
- 건립년도 : 1947년 8월
- 규 모
 - 실내전시장 26개, 컨벤션홀 35개
 - 실내전시면적 : 466,100m²
 - 주차가능대수 : 39,000대
- 영업 현황(2011년)
 - 매출액 : € 293백만(≒4,935억원)
 - EBITDA : € 63백만(≒945억원)
 - 직원 : 936명
 - 전시 개최건수(독일내) : 62건 (12건 주관, 50건 임대)
 - 전시 개최건수(해외) : 41건
- 대표전시회 : CeBIT(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 하노버산업박람회 등



□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개요

- 전시장명 : Messe Frankfurt
- 연 혁
 - 1240년 무역전시 특별도시로 지정
 - 1911년 전시회사 설립
 - 1982년 Messe Frankfurt GmbH 설립
- 규 모 : 355,535m²(10개 전시홀)
- 영업 현황(2011년)
 - 매출액 : € 467백만(≒7,005억원)
 - 직 원 : 1,700여명
 - 전시 개최건수 : 37건(주관 및 임대 포함)
 - 해외 주관전시 개최건수 : 63건
- 대표전시회 : 암비엔테(선물,생활용품), 오토메카니카(자동차부품)



□ 전시장별 비교표

전시장명	하노버 전시장 (2011년 기준)	프랑크푸르트 (2011년 기준)	킨텍스 (2012년 기준)	비 고
설립년도	1947	1911	2002	
출자기관/ 비율	니더작센주 50.0%	헤센주 40%	경기도 33.5%	
	하노버시 49.8%	프랑크푸르트시 60%	고양시 33.5%	
			코트라 32.9%	
실내 전시면적	460,437m ²	355,535m ²	108,560m ²	
매출액	4,935억원	7,005억원	462억원	
전시 개최건수	62건	37건	97건	해외 주관 전시 제외
대표전시회	CeBIT 등	Ambiente 등	SIMTOS 등	

※ 킨텍스 제2전시장 개장(11.9월) 이후 성과 기준 비교

※ 매출액 등은 각 전시장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참조)

IV 방문기관별 출장내용

지역	관계기관	주요 내용
프라하	KOTRA 무역관	- 체코(프라하) 주요 산업 현황 및 체코 전시산업 현황
하노버	Deutsche Messe	- 시설 소개 - 전시장과 지역발전과의 관계 논의
	공작기계산업협회	- SIMTOS 규모 확대 방향 논의 - 관람객 체류를 위한 방안 논의
프랑크푸르트	Messe Frankfurt	- 시설 소개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방안

□ 체코의 주요산업 및 전시 산업 청취를 위한 오찬 간담회

○ 일 시 : 2013. 9. 14(토) 12:00 ~ 13:00

○ 장 소 : 프라하 PARNAS식당

○ 참석자

- 고양시의회 : 박윤희 의장 등 4명
- 코트라 : 이강재 차장
- 킨텍스 : 기획조정실 김대겸 대리

○ 내 용

<체코의 교역현황>

- 체코는 '09년 이후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2년 무역수지 흑자는 159억불로 최고치 달성함.
- 2012년도 대 EU 수출이 전체 수출의 90%(아시아는 5.2%)를 점유함.
- 수입도 EU지역이 74%(아시아 21%)이며 독일과의 교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한국의 대 체코 투자 현황>

- 2012년 말 기준 한국의 대 체코 투자 규모는 143건, 총 13.7억달러이며 투자액 기준 중동부 유럽 국가 중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 수준임.
- 현대자동차 현지 생산공장 설립으로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한국의 대 체코 투자 진출 지역 형성함.(연간 30만대 생산)
- 체코정부는 주변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원전 2기 신규 건설에 100억불을 투자할 계획임. 국민 여론은 체르노빌, 일본 원전 사고 사례 등에도 불구하고 크게 민감하지 않은 실정임.
- 최근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원자력산업전(‘13. 9. 10 ~ ‘13. 9. 13)에 체코 원전관련 기업 6개사가 참여하여 상담 6건, MOU 1건을 체결한 실적이 있음.

<인프라>

- 체코는 총 연장 9500여km에 달하는 철도망을 갖추어 유럽 국가 중 가장 조밀한 철도망을 구축함.
- 7개의 국제공항과 676km에 달하는 수로운송 구간 등 물류 인프라는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높은 교육열로 문맹률이 0에 가까우며(세계 최고 수준), 유럽에서 고등교육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풍부한 외국어 구사 인력 보유하고 있음.
- 유럽의 전통적인 공업국으로 부품 및 소재산업, 금속 및 기계산업 등 안정적인 기초 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전시 산업 현황>

- 코트라 무역관에서는 한국(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체코 및 인근국가 기업을 많이 출품시키고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체코 제2의 도시인 Brno(브루노)에 1928년에 최초로 설립하고 15개홀, 실내 전시면적 12만m²를 보유한 전시장이 있으며 국제엔지니어링페어 등이 유명함.

- 브루노는 인구 50만의 도시로 한 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체코인의 90% 이상이 브루노하면 전시회가 연상된다고 응답할 만큼 명실공히 체코의 전시산업의 수도로서 중유럽의 전시산업을 선도하고 있음.
- 브루노 전시장의 대주주는 6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메세뒤셀도르프이며 브루노시가 34%를 보유하고 있음.

□ 고양시, KINTEX 및 SIMTOS 상생을 위한 간담회

○ 일 시 : 2013. 9. 16(월) 11:00 ~ 14:00

○ 장 소 : 하노버 전시장내 회의실 및 인근식당

○ 참석자

- 고양시의회 : 박윤희 의장 등 4명
- 공작기계산업협회 : 강소안 이사, 박재현 과장
- 킨텍스 : 조성영 팀장, 팽재훈 과장, 김대겸 대리, 박성진 사원

○ 내 용

<SIMTOS 확장을 위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

- SIMTOS는 현재 세계 4위의 공작기계전시회이며 향후 EMO 규모로 확대(현재 기준 3배 확장, 10만m²→30만m²)할 계획이므로 킨텍스의 실내 전시면적 확장 및 방문객의 장기체류를 위한 주변 인프라 구축 요구

<관람객의 장기 체류 방안>

- 하노버는 전시장 인근에 한시간이라도 더 머무르게 하는 체제를 갖추어 모든 소비를 전시장 안팎, 하노버市 내에서 하도록 함.

☞ 하노버사례) 전시 입장권으로 트램 등의 교통수단을 탑승할 수 있고, 시내 중심부까지 20분이내에 갈 수 있으므로 참관중이라도 시내에 다녀올 수 있음.



☞ SIMTOS(사례) 참관객이 킨텍스에 와서 머무르지 않고 관람 후에 식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실정임. 평균 차량 주차 시간이 3.5시간에 불과함.

※ 관람객 체류 방안

- 킨텍스 내에만 머무르게 하기 보다 라페스타, 웨스틴돔 등 식음매장과 쇼핑몰이 밀집해있는 지역으로 유인하여 기존 인프라를 활용
- 하노버의 경우 투어 프로그램 등을 EMO 홈페이지에 연동하여 안내

<SIMTOS 등 대형 행사 지원>

- 공항에서 전시장으로 올때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필요
- 주요 동선상에 홍보를 하여 시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
- 주최측, 킨텍스, 시청, 의회가 모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 전시회 참관객을 관광, 식음, 숙박시설 등으로 연계
- 그동안 인프라 구축을 하였고 이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제안 : 고양시 홍보관을 Visitor information center로 변경

- 방문자 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여도 고양시 홍보의 목적 달성이 가능함. 고양시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 보다는 관광, 식음, 숙박, 간단한 비즈니스 업무(팩스, 복사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관람객을 고양시로 체류하게 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향후 킨텍스 내부뿐만 아니라 고양시 관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도 관광안내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하노버 전시장 관계자 간담회

○ 일 시 : 2013. 9. 16(월) 14:00 ~ 15:00

○ 장 소 : 하노버 전시장내 회의실

○ 참석자

- 고양시의회 : 박윤희 의장 등 4명
- 킨텍스 : 기획조정실 김대겸 대리
- 도이치메쎬

· Mr. Harald Windeler(Director, Technical Services for Exhibitors)

· Ms. Simona Erdmann(Director,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Mr. Christian Sator(Technical Services for Exhibitors)

- IPR포럼(도이치메쎬 한국대표부) : 유재은 대리

○ 내 용

<일반현황>

- 2012년도 매출액은 251백만유로(약3765억원)달성, 당기순손실 19.8백만유로(약297억원) 달성
- 2012년도에는 105건의 전시회를 직접 주관하였고 이중 43건은 해외에서 개최함
- 19, 20번홀은 지은지 5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써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개선공사 진행중
- EMO에서는 금년 최초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참관단 환영패키지'를 운영하였음. 직접 전 세계에 관련된 단체와 기업을 찾아 전시회 방문을 위한 패키지를 제공, 단순 참관객이 아닌 양질의 바이어가가 좀 더 많이 전시회로 올 수 있도록 함.

<질의 응답 요지>

Q : 1개의 대형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

A : CeBit(정보통신박람회) 경우 도이치메쎬 정규인력으로 약 400여 명이 투입되고 이중 약 60여명이 세일즈를 담당함.

Q : 대형 전시회 개최시 하노버시의 역할

A : 도시 마케팅, 시내 중심부에 배너 게재 등을 하고 있으나 市の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평소보다 늦게까지 상점이 영업을 하며 교통편도 자주 운행하는 등 도시 인프라가 집중됨.

Q : 전시회 이후에 관람객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A : 전시장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없고 시에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전시회 티켓으로 교통수단을 탑승할 수 있음.

하노버 중앙역 인근 관광안내센터 방문 결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Q : 전시장 내 창고 운영 사례

A : 창고는 전시장 내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단지 바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외부 물류기업 3개사에 위탁하여 운영중임. 참가업체 물품, 부스 장치 등의 서비스 업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중임.

□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관계자 간담회

○ 일 시 : 2013. 9. 18(수) 09:30 ~ 10:30

○ 장 소 : 프랑크푸르트 전시장내 회의실(Tor Haus 23층)

○ 참석자

- 고양시의회 : 박윤희 의장 등 4명

- 킨텍스 : 기획조정실 김대겸 대리

- Messe Frankfurt

· Mr. JÖRG Seyffart(Vice president, Subsidiary Management/M&A)

· Ms. Irina Voronkova(Project manager, Subsidiary Management/M&A)

○ 내 용

- 킨텍스와 마찬가지로 시와 주정부가 전시장의 주주기관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사회사를 포함한 전사에서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음.

CSR 주요 분야

① 환경/지속(Environment/Sustainability)

-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2개소의 태양광 집열판이 있음.
- 전시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폐기물의 최고 90%를 재활용함.
-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전시회 입장권으로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연간 입장권을 통해 직원들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전시장내의 물류차량 이동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창고를 지어서 인근의 물류차량 이동을 줄여서 배기가스 감축에 도움을 줌.

②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기업문화 : 다양성, 공정성, 존경심을 습득하고 편견과 독단이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 근무환경 : 안정적인 일자리와 평균 이상의 근로조건을 만들고 장기근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사례) 근로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육아지원, 전사스포츠클럽(Bike to work), 헬스프로그램(Messe Vital)
- 2009년 메세프랑크푸르트는 독일 최고의 'Top Employers'로 선정됨
- 기타 혜택과 특징으로는 외국 지사 연수, 사내 Facebook 운영등이 있음.

③ 교육/과학(Education/Science)

- 'Akademie Messe Frankfurt'는 다수의 훈련프로그램, 세미나 등이 있으며 다양한 직업군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시전문가 양성과정도 있음.
- 기금을 마련하여 괴테대학교에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현재 저명한 경제학 교수인 Mattias 교수가 현재 강의하고 있음.

④ Cultural Involvement : 이벤트 기획과 후원, 음악/건축/디자인분야 어워드 개최

<질의 응답 요지>

Q : 직원 수, 시설 유지 보수 아웃소싱 여부

A : 정직원은 약 850명가량이며 보안, 주차 등은 별도로 아웃소싱하고 있음.

Q : 최초의 해외 진출 전시회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 1987년도 홍콩에서 Interstoff(섬유 직물 박람회) 최초 개최
해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자 오히려 많은 참가업체들이 독일로 전시회를 참가하러 오게 됨.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독일 기업의 시장을 넓히는 계기가 됨.

Q : 순이익에 대한 주주 배당금을 지급하는지

A : 감가상각비를 상회하는 순이익이 발생하므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음. 2012년도 당기순이익은 약 369억원이며, 총 195억원을 배당함.

* 출처 : 2012 메쎬프랑크푸르트 영업보고서

Q : 시와의 관계

A : 독립적으로 운영. 시로부터 별도의 지원은 없음.

※ 시사점

- 해외 참가업체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지사 설립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음.

V 출장자 의견

① 고양시의회 박윤희 의장

두 전시장의 매출은 고양 킨텍스의 10~16배에 달하며 세계적인 기획 전시와 해외 진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하고 전시 수출도 계획하고 있어, 킨텍스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안될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전시회 자체가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과 숙박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경우 공항에서 15분 거리, 기차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전철역이 전시장 내로 들어와서 매표소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11개의 전시장은 실내 무빙워크로 연결되어 관람을 쉽게 도와준다. 70만 명의 인구에 호텔은 380개를 넘고 있다. 운영주체인 메세 프랑크푸르트는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었다.

킨텍스 창립 10년이 되었지만 고양시는 그동안 킨텍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소홀하였다. 지금이라도 교통과 숙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대화역의 전철이 킨텍스 안으로 연결되는 방안, GTX가 되기 전에 9호선을 대곡역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급호텔 뿐만 아니라 중저가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년 400만 명에 달하는 킨텍스 관람객이 고양시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킨텍스는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문성과 기획성을 강화해 좋은 전시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② 김훈태 전문위원

- 킨텍스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혁신 및 마케팅을 통하여 세계적인 전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큰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킨텍스 전시회시 관람객 1인이 고양시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3.5시간이라는 보고가 있음. 이는 전시회만 관람하고 고양시를 떠난다는 얘기임.
- 앞으로는 고양시에서 1일 이상 체류를 하면서 소비를 하도록 해야 함. 다시 말해서 머무르게 하는 도시를 조성하여 전시산업을 통하여 먹고 사는 길을 모색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전시회와 연계한 교통, 관광, 숙박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아울러 시의회, 고양시, 킨텍스, 관계기관 및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양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분담을 통하여 전시산업에 충력을 기울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짐.

VI 참고자료

1. 사진으로 보는 해외출장 활동



○ 하노버 EMO 전시장에 도착해서 킨텍스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하노버 EMO 전시장 세미나실에서 공작협회 강소안 이사 일행과 미팅을 하고 있음.



○ 하노버 전시장 관계자와 미팅후 기념품을 교환하고 있는 장면



○ EMO 전시장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관계자와 미팅을 하고 있는 모습



○ 모터쇼 전시장에서 한 컷

2.

출장자 명단

연번	소 속	직급	성명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1	고양시의회	의 장	박윤희	여	010-8866-2697 uny1@naver.com
2	"	환경경제 위원장	김영식	남	010-3372-4996 ingkimys@hanmail.net
3	"	의 원	이길용	남	010-6201-5298 leeky253@hanmail.net
4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훈태	남	010-3742-8059 kunta9110@korea.kr
5 (동반)	킨텍스	대 리	김대겸	남	010-7100-0527 kyummm@gmail.com

3. 출장국가 개요

가. 국가명 : 체코공화국(Czech Republic)



- 수 도 : 프라하(125만명)
- 인 구 : 1,054만명(세계 86위, 한국 25위)
- 면 적 : 78,864km²(세계 116위, 한국 109위)
- 언 어 : 체코어
- 종 교 : 카톨릭(39%), 프로테스탄트(4%), 무교(40%), 기타(17%)

나. 국가명 : 독 일



- 수 도 : 베를린(350만명)
- 인 구 : 8,100만명(세계 16위)
- 면 적 : 357,022,864km²(세계 63위)
- 언 어 : 독일어
- 종 교 : 개신교(34%), 카톨릭(34%), 이슬람교(3.7%)

4. 언론보도 스크랩

<우리일보>

고양시의회, 세계 전시산업 흐름을 읽다 킨텍스 인프라 구축과 전시전문성 강화 등 대안제시

2013년 09월 30일 17시 20분 입력

고양시의회 박윤희 의장은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 그리고 이길용 의원과 함께 추석 기간 독일 하노버 전시장의 공작기계전과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세계모터쇼를 참관하고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세계적인 전시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돌아왔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의회 연수단은 독일 하노버와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방문에서 고양 킨텍스의 10~16배에 달하는 매출과 세계적인 기획 전시와 해외 진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으며, 운영 주체들이 세계를 무대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이미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하고 전시 수출도 계획하고 있어 킨텍스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될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독일 전시회 자체가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과 숙박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경우 공항에서 15분 거리, 기차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전철역이 전시장 내로 들어와서 매표소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함께 11개의 전시장은 실내 무빙워크로 연결되어 관람을 쉽게 도와주고 있으며, 70만 명의 인구에 호텔은 380개를 넘고 있다. 이번

연수 결과 시의회는 독일 전시컨벤션산업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 킨텍스 전시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킨텍스 창립 10년이 되었지만 고양시는 그동안 킨텍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소홀했으며, 지금이라도 교통과 숙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대화역의 전철이 킨텍스 안으로 연결되는 방안과 GTX가 되기 전에 9호선을 대곡역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급호텔뿐만 아니라 중저가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년 400만 명에 달하는 킨텍스 관람객이 고양시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과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문성과 기획성을 강화해 좋은 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킨텍스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성패가 달렸으므로, 킨텍스 운영진은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조적 전시 기획으로 킨텍스가 세계적인 전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이기홍 기자 wooriilbo@wooriilbo.com>

<중부일보>

고양시의회 "킨텍스 교통·숙박 등 인프라 구축 시급"

데스크승인 2013.09.30

▲ 고양시의회 박윤희 의장과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 이길용 의원 등 연수단은 최근 전시산업 벤치마킹을 위해 독일 하노버 전시장과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을 방문했다.



<사진=고양시의회>

킨텍스가 교통과 숙박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고양시의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최근 독일 전시컨벤션산업을 벤치마킹하고 킨텍스 전시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독일 하노버 전시장의 공

작기계전과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세계모터쇼 등을 참관했다.

박윤희 의장과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 이길용 의원 등은 이들 전시장을 방문해 전시회 참관과 함께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세계적인 전시산업의 흐름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독일 하노버와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방문을 통해 전시회가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경우 공항에서 15분, 기차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전철역이 전시장 내로 들어와 매표소와 연결돼 있는 등 교통과 숙박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킨텍스의 10~16배에 달하는 매출과 함께 운영 주체들이 세계를 무대로 한 기획 전시와 해외 진출을 통한 공격적인 경영을 꾀하면서 이미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전시수출도 계획하고 있어 킨텍스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킨텍스는 개장한지 10년이 됐으나 그동안 교통과 숙박 등 킨텍스의 활성화 인프라 구축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화역까지 다니는 3호선 전철을 킨텍스 안으로 연결하고 GTX 이전에 9호선을 대곡역으로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특급호텔뿐만 아니라 중저가 비즈니스급 호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허일현 기자/hur20027@joongboo.com>

<경기도민일보>

고양시의회 연수단 독일 방문 하노버 · 프랑크푸르트 세계모터쇼 참관

고양시의회 박윤희 의장 일행이 세계모터쇼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고양시의회 박윤희 의장은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 이길용 의원과 함께 추석 기간 독일 하노버 전시장의 공작기계전과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세계모터쇼를 참관하고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세계적인 전시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돌아왔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 연수단은 독일 하노버와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방문에서 고양 킨텍스의 10~16배에 달하는 매출과 세계적인 기획 전시와 해외진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으며 운영주체들이 세계를 무대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이미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하고 전시 수출도 계획하고 있어 킨텍스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안될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독일 전시회 자체가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

통과 숙박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경우 공항에서 15분 거리, 기차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전철역이 전시장 내로 들어와서 매표소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함께 11개의 전시장은 실내 무빙워크로 연결되어 관람을 쉽게 도와주고 있으며 70만명의 인구에 호텔은 380개를 넘고 있다.

이번 연수결과 시의회는 독일 전시컨벤션산업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 킨텍스 전시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고양 킨텍스 창립 10년이 되었지만 시는 그동안 킨텍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소홀했으며 지금이라도 교통과 숙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역의 전철이 킨텍스 안으로 연결되는 방안과 GTX가 되기 전에 9호선을 대곡역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급 호텔뿐만 아니라 중저가 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킨텍스 운영진은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조적 전시기획으로 킨텍스가 세계적인 전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 조기택>

<경인매일>

“독일 전시산업 엿보고 왔어요”

2013년 09월 26일 (목) 15:36:31 김장운기자

고양시의회 박윤희의장은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 그리고 이길용 의원과 함께 추석 기간 독일 하노버 전시장의 공작기계전과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세계모터쇼를 참관하고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세계적인 전시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돌아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의회 연수단은 독일 하노버와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방문에서 고양 킨텍스의 10~16배에 달하는 매출과 세계적인 기획 전시와 해외 진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으며, 운영 주체들이 세계를 무대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이미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하고 전시 수출도 계획하고 있어 킨텍스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될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독일 전시회 자체가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과 숙박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경우 공항에서 15분 거리, 기차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전철역이 전시장 내로 들어와서 매표소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함께 11개의 전시장은 실내 무빙워크로 연결되어 관람을 쉽게 도와주고 있으며, 70만 명의 인구에 호텔은 380개를 넘고 있다.

이번 연수 결과 시의회는 독일 전시컨벤션산업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 킨텍스 전시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킨텍스 창립 10년이 되었지만 고양시는 그동안 킨텍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소홀했으며, 지금이라도 교통과 숙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구체적으로 대화역의 전철이 킨텍스 안으로 연결되는 방안과

GTX가 되기 전에 9호선을 대곡역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급호텔뿐만 아니라 중저가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1년에 400만 명에 달하는 킨텍스 관람객이 고양시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과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문성과 기획성을 강화해 좋은 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킨텍스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성패가 달렸으므로, 킨텍스 운영진은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조적 전시 기획으로 킨텍스가 세계적인 전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고양시의회 참관단은 강조했다.

한편 제2전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적이 없는 점은 이번 고양시의회 참관단의 아쉬운 부분이다.

<고양 김장운 기자>

<경인종합일보>

고양시의회, 프랑크푸르트 세계모터쇼 참관 "세계적인 전시산업 흐름을 파악"

2013년 09월 26일 (목) 16:41:26 이규환 기자

[경인종합일보 이규환 기자] 고양시의회 박윤희 의장은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 그리고 이길용 의원과 함께 추석 기간 독일 하노버 전시장의 공작기계전과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세계모터쇼를 참관하고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세계적인 전시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돌아왔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의회 연수단은 독일 하노버와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방문에서 고양킨텍스의 10~16배에 달하는 매출과 세계적인 기획 전시와 해외 진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으며, 운영 주체들이 세계를 무대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이미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하고 전시 수출도 계획하고 있어 킨텍스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될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독일 전시회 자체가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과 숙박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경우 공항에서 15분 거리, 기차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전철역이 전시장 내로 들어와서 대표소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함께 11개의 전시장은 실내 무빙워크로 연결되어 관람을 쉽게 도와주고 있으며, 70만 명의 인구에 호텔은 380개를 넘고 있다.

이번 연수 결과 시의회는 독일 전시컨벤션산업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 킨텍스 전시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킨텍스 창립 10년이 되었지만 고양시는 그동안 킨텍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소홀했으며, 지금이라도 교통과 숙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대화역의 전철이 킨텍스 안으로 연결되는 방안과 GTX가 되기 전에 9호선을 대곡역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급호텔뿐만 아니라 중저가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년 400만 명에 달하는 킨텍스 관람객이 고양시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과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문성과 기획성을 강화해 좋은 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킨텍스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성패가 달렸으므로, 킨텍스 운영진은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조적 전시 기획으로 킨텍스가 세계적인 전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일보>

고양시의회, 전시컨벤션산업 성공사례 조사 연수 독일 대표 전시회 참관... 관계자 간담회 예정

기사입력(2013-09-12 16:59)

고양시의회는 박윤희 의장을 단장으로 하고 환경경제위원장을 포함한 시의원 3명으로 구성해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독일 대표 전시장과 컨벤션산업의 성공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국외연수를 다녀온다.

지난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독일 대표 전시회인 유럽국 제작기계전(EMO)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를 벤치마킹해 킨텍스 전시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참관하는 공작기계 전시회(EMO)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전문 전시회로서 2014년에는 대한민국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 역시 유럽 자동차산업을 총망라하는 전시무대로서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이다.

시의회는 서유럽과 동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망, 물류기지, 전시시설, 인근지역과의 연계 관광, 언어소통 등 오랜 세월에 걸쳐 전문 분야별 전시업종에 특화된 독일 전시산업의 강점을 중점 점검해 고양시 킨텍스 운영방식을 비교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 하노버 및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대형 전시회 육성, 전시전문가 양성 및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 전시회와 연계한 도시마케팅 등 운영 노하우를 청취한다.

한편, 박윤희 의장은 “이번 연수는 해외 우수 사례를 현장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독일 컨벤션산업의 최신정보, 기술 및 제도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고양시 자치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이만희 기자>

<아시아일보>

고양시의회, 독일 공작기계전.세계모터쇼 참관 킨텍스 인프라 구축.전시 전문성 강화 대안 제시

기사입력(2013-09-26 14:49)

고양시의회 박윤희 의장은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 이길용 의원과 함께 추석 기간 독일 하노버 전시장의 공작기계전과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세계모터쇼를 참관하고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세계적인 전시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돌아왔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의회 연수단은 독일 하노버와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방문에서 고양 킨텍스의 10~16배에 달하는 매출과 세계적인 기획 전시와 해외 진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으며, 운영 주체들이 세계를 무대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이미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하고 전시 수출도 계획하고 있어 킨텍스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될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독일 전시회 자체가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과 숙박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경우 공항에서 15분 거리, 기차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전철역이 전시장 내로 들어와서 매표소와 바로 연결돼 있다. 이와 함께 11개의 전시장은 실내 무빙워크로 연결돼 관람을 쉽게 도와주고 있으며, 70만 명의 인구에 호텔은 380개를 넘고 있다.

이번 연수 결과 시의회는 독일 전시컨벤션산업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 킨텍스 전시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킨텍스 창립 10년이 되었지만 고양시는 그동안 킨텍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소홀했으며, 지금이라도 교통·숙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대화역의 전철이 킨텍스 안으로 연결되는 방안과 GT X가 되기 전에 9호선을 대곡역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이 이루어져야 하

며, 특급호텔 뿐만 아니라 중저가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연 400만 명에 달하는 킨텍스 관람객이 고양시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과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문성과 기획성을 강화해 좋은 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킨텍스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성패가 달렸으므로, 킨텍스 운영진은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조적 전시 기획으로 킨텍스가 세계적인 전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 이만희 기자>

<인천일보>

고양시의회, 독일 전시산업 시찰 하노버·프랑크푸르트 방문 관계자 만나

2013년 09월 27일 (금)

고양시의회 박윤희 의장은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과 이길용 의원이 함께 추석 기간 독일 하노버 전시장의 공작기계전과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세계모터쇼를 참관하고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세계적인 전시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돌아왔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 연수단은 독일 하노버와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방문에서 고양 킨텍스의 10~16배에 달하는 매출과 세계적인 기획 전시와 해외 진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으며 운영 주체들이 세계를 무대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이미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하고 전시 수출도 계획하고 있어 킨텍스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될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독일 전시회 자체가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과 숙박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경우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기차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전철역이 전시장 내로 들어와서 매표소와 바로 연결돼 있다.

이와 함께 11개의 전시장은 실내 무빙워크로 연결되어 관람을 쉽게 도와주고 있으며, 70만 명의 인구에 호텔은 380개를 넘고 있다.

이번 연수에 시의회는 독일 전시컨벤션산업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 킨텍스 전시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킨텍스 창립 10년이 되었지만 고양시는 그동안 킨텍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소홀했으며 지금이라도 교통과 숙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대화역의 전철이 킨텍스 안으로 연결되는 방안과 GTX가 되기 전에 9호선을 대곡역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이 이뤄져야 하며 특급호텔뿐만 아니라 중저가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년 400만 명에 달하는 킨텍스 관람객이 고양시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과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문성과 기획성을 강화해 좋은 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양=이종훈 기자 jhl@itimes.co.kr>

<전국매일>

고양시의회, 세계적 전시산업 벤치마킹 킨텍스 방향·정책대안 모색

박윤희 경기 고양시의회 의장과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 및 이길용 의원은 지난 추석 기간동안 독일 하노버 전시장의 공작기계전과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세계모터쇼를 참관했다.

시의회 연수단은 독일 하노버와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방문에서 고양 킨텍스의 10~16배에 달하는 매출과 세계적인 기획 전시와 해외 진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봤으며, 운영 주체들이 세계를 무대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이미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하고 전시 수출도 계획하고 있어 킨텍스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독일 전시회 자체가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과 숙박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의 경우 공항에서 15분 거리, 기차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전철역이 전시장 내로 들어와서 매표소와 바로 연결돼 있다. 이와 함께 11개의 전시장은 실내 무빙워크로 연결돼 관람을 쉽게 도와주고 있으며, 70만 명의 인구에 호텔은 380개를 넘고 있다.

이번 연수결과 시의회는 독일 전시컨벤션산업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 킨텍스 전시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킨텍스 창립 10년이 됐지만 고양시는 그동안 킨텍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소홀, 지금이라도 교통·숙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연 400만 명에 달하는 킨텍스 관람객이 고양시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과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문성과 기획성을 강화해 좋은 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고양 임청일 기자 >